

“핸드폰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표준과학연구원, 노인층 대상 시각 성능·자극 반응 설문조사

노인들의 인체치수는 청년층과 비교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키에서는 10cm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 노인들을 위한 제품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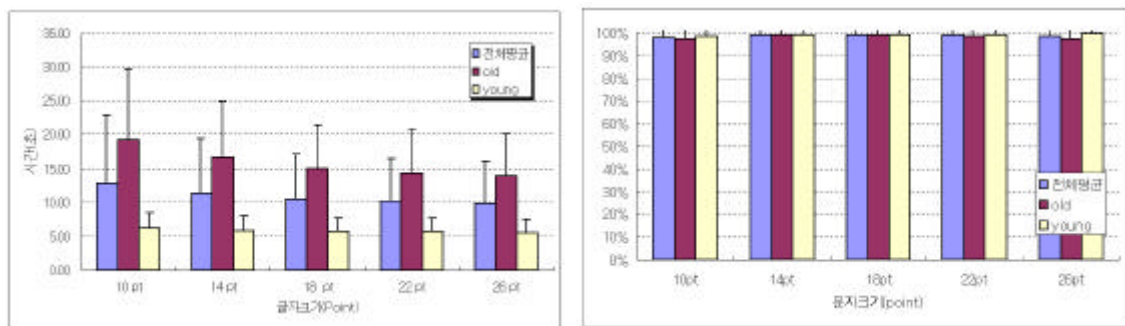
또 노인들은 문자의 크기가 작은 것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며, 핸드폰 버튼의 크기 자체보다는 버튼 위에 쓰여진 문자의 크기가 너무 작고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버튼의 간격이 좁아 1개의 버튼을 누르고자 할 때 다른 버튼까지 잘못 누르게 되어 불편하다고 노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답해 ‘작고 가볍게’를 지향하는 현재 디자인의 추세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아울러 주어진 문자를 컴퓨터에서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가독성, 판독성 측정 및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반응 측정에서 그래프와 같이 노인들은 청년층보다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됐으나, 정확도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간·정보그룹(연구책임자 박세진 박사)이 고령화시대에 부응해 노인의 인체특성에 관한 기초데이터를 확충함으로써 실버제품의 응용기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약자 시각 성능·자극 반응측정 연구를 수행하는 중 노인의 여러 가지 인체특성 중 시각성능에 관련된 데이터 측정과 기초인체 측정, 일상생활이나 일반제품 사용에서 느끼는 시각적 장애를 설문지로 노인 남녀 100명에게 측정·조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컴퓨터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단순 자료입력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노인들도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자크기에 따른 속도 및 정확도 (노년층과 청년층 비교)

시각성능 측정은 컴퓨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사회에서 노인들의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독성 및 판독성을 글자크기에 따라 측정했고, 색채와 길이, 면적 자극에 대해 답을 찾아내

는 반응측정과 그림을 보고 공간감을 판단하는 공간지각 측정으로 구성했다.

우리 나라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 이미 전체인구의 7%에 달했으며, 평균수명도 1990년 71.3세에서 1999년 75.6세로 연장되었다.

UN이 정의하고 있는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으로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특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인을 의존적, 아픈, 외로운 등과 같은 의미의 단어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버산업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노인세대와 미래의 노인세대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소비층으로 부상할 것이며, 모든 활동과 현상에 대해 능동적인 자세를 지니게 될 전망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1/ 11 >